익산시 지역 업체·제품 우선계약 추진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 신고자 본인 인증 절차 폐지·익명 신고 가능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역 업체(생산품)의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위반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부터 지역 업체(생산품) 우선 계약(구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 지역 소재 업체의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업체 우선 구매가 가능함에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익산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익산시는 시 홈페이지에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며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을 거쳐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 여부 확인 인증 절차를 없애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방문 신고 외 전화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법도 대폭 개선했다.

정헌율 시장은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자리 잡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익산시와 지역 관공서가 지역제품 우선이용 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노인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

부송복지관 주관, 인식개선·신고전화 홍보활동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영등동 일원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참여했으며 노인학대 인식도 조사, 인스타그램판을 이용한 사진 찍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부송복지관에서 3년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출장 중 쓰러진 군산시 공무원, 요양 승인 확정

노조 중심 직원들 서명운동 등 전개 노력

업무 상 출장 중에 쓰러진 군산시청 소속 오모 계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올해 1월 당시 해양수산과(현.항만해양과)에서 어촌계발 업무를 수행하던 오 계장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해 옥도면 비안도 출장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급성 뇌경색 진단를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오 계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과 군산시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약을 복용하던 병력을 연관 지어 일반질병 휴직으로 판단해 그동안 공무상 휴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위한 군산시청 직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5월 중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요양 승인을 요청했다.

이처럼 군산시의 노력에 인사혁신처도 직접 현장을 찾아 해당 직원의 시간 외 근무내역,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7일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확정 통보했다.

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선 방안들이 마련돼 더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윤 위원장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아픔을 함께 나눴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울러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옳은 결정을 내려준 인사혁신처에도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180일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인정받은 오 계장은 향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 관련 증빙서류나 관련 진단서 등을 토대로 3년 범위 내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군산시가 상수도 시설물(배수지 및 가압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한다.

상수도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상태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상태 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봉배수지외 4개소에 대해 6월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경주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전 시설물인 나운배수지 외 9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조사, 지반조사 등을 실시 내진성능을 12월말까지 판정한다. 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도가 큰 시설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영농현장 지원에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 소형양배추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자립도시 군산시가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영농현장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난 14일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군산시지부 직원들은 최근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소형양배추 수확 농가를 찾아가 구슬땀을 흘렸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기관 단체가 농촌 일손 돕기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집중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아이장터 등 추진

군산시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 지난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군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최당현), 예비사회적기업 ㈜투어앤미디어 아카데미(대표 권민식), (유)꿈깍지(대표 오지영) 등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은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아이장터'를 협력 운영해 사회적 경제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전통시장으로, 지역경제성장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전통시장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설시장 청년몰은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 지난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 도시재생 선행 사례지 벤치마킹

중앙·창인·인화동 주민, 순천 문화의거리 방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시 중앙·창인·인화동 지역주민은 지난 14일 사업 우수사례지역인 순천시 문화의거리 일대를 방문해 벤치마킹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중앙·창인·인화동 일대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벤치마킹한 순천시는 2009년부터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시작된 순천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문화의 거리, 50년 이상 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점포와 공연,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춘창고 등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대 주민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주민과 갤러리, 공방 등 상인들의 상생협력 등 원도심 지역 특색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협업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